

SH공사, 2010년 부패제로 원년 선포



▲ SH공사는 지난 4월 19일 단 하나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부응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청렴증합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 및 공사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방안 자문을 위한 「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비리행위 사전차단 및 항상 청렴한 조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편집자 주]

■■ 이슈&이슈

SH공사는 지난 4월 19일 전임직원이 ‘부패근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단한 자정노력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단 하나”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청렴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사에서도 도입하여 금품수수 등 비리발생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차상급자까지도 징계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업체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해임조치(건축4급 박○○)하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로 직위를 해제한 후 문책, 조치했다.

SH공사는 앞으로 100만원 미만을 수수하더라도 금품·향응 요구나 정기 및 상습적 수뢰·알선 및 수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임이상 중징계하여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H공사 방문고객이 느낀 업무담당자의 청렴도를 즉석에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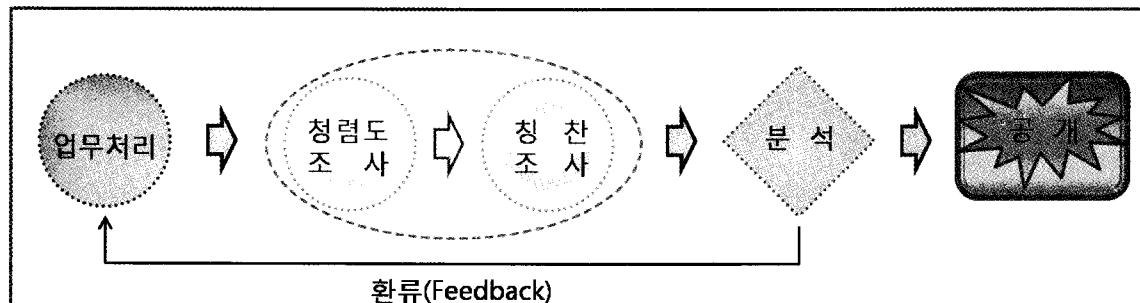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를 새롭게 구축했다.

SH공사는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이 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시민의 관점에서 진단 및 처방,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임직원의 비리 및 부패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시민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고품질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최고수준의 청렴의식을 갖추어 청렴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렴도 상시 확인시스템 「청렴온도를 높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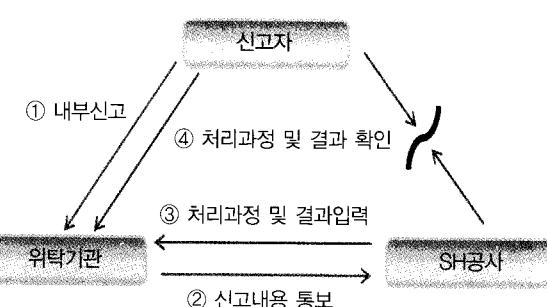


목적	업무담당자의 청렴도를 즉석에서 평가하여 공개하고 실시간 개선대책 마련
대상	대민관련업무(보상, 공급, 계약, 시공, 주택관리, 하자 등)
항목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부문 청렴도 조사와 업무담당자의 청렴도 조사 병행
조치	업무개선 후 청렴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부서 청렴실적평가시 감점



부조리신고업무 외부기관 위탁

목적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
주요 개선내용	「부조리신고 접수업무 아웃소싱」 SH공사 홈페이지에서 'SH신문고'를 접속하면 위탁기관의 신고접수창('Help-Line')으로 연결 → 위탁기관에서 우리 공사 부조리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신고내용 발송
위탁기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운영개시일	2010년 2월 1일



* 신고자의 IP만 남고 인적사항은 기록되지 않아 신고자
를 위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음

구 분	당 초	개 선
신고자	공사 임직원, 직무관련자	공사임직원, 직무관련자
신고접수	SH공사	위탁기관
신고내용 통보	-	위탁기관 → SH공사
결과통보 (입력)	SH공사 → 신고자	SH공사 → 위탁기관
결과확인	-	신고자 → 위탁기관



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영혼의 무게

영혼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병원 원장 덩컨 박사는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영혼에 대한 특이한 실험을 했다.

우선 커다란 저울을 제작하여 사망 직전의 환자를 저울 위에 눕힌 다음 환자가 숨을 거두는 시간에 저울을 측정해 보았더니 저울눈의 무게가 갑자기 16g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망 직전의 환자 6명에게 실험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한다.

이후 덩컨 박사는 영혼의 무게가 16g이라는 학설을 발표했다.

골프공

골프공은 수많은 흄이 파여 있다. 다른 구기 종목에 사용되는 공들과 달리 골프공의 모양은 왜 이렇게 특이한 것 일까?

골프공에 있는 흄들은 깊은 공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동할 때 물질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항력을 최소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골프공이 공기 속을 날아갈 때 이 흄이 항력을 약화시켜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같은 힘으로 공을 쳤을 때 흄이 없는 공은 65cm를 날아간다면 흄이 파인 공은 275cm를 날아간다.

골프공의 흄 수는 300~350개인데 각각 0.25mm의 깊이로 파여 있다. 이 흄은 공을 역회전시켜 공기의 압력을 덜 받게 하기도 한다.

『날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